

## 시연 施連칼럼

## 도연명陶淵明과 소동파蘇東坡

권오신(좌윤공파회장, 칼럼니스트)

## 유연정(悠然亭)의 맛

한국인과 가장 친숙한 중국 시인(詩人)이라면 도연명(陶淵明, 365~427 당시성)과 소식(蘇軾, 1037~1101 북송 쓰촨성) 소동파(蘇東坡)다. 도연명(陶淵明)은 경주 운고거원(雲谷書院) 유연정(悠然亭,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)으로 인해 더 알려졌다. 정자 이름 유연정은 도연명(陶淵明, 365~427)의 시(詩) “음주(飲酒):〈채국동리하 採菊東籬下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꺾어 들고 유연경남산悠然見南山을 바라보네.〉”에서 가져왔다.



적벽부(赤壁賦)는 역사를 얘기하는 듯 보이지만 자연에 더 감복하고 무위 사상에 닿은 시(詩)로도 해석된다. “인생이 이르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가? 눈이나 진흙 위에 남겨진 기러기 발자국과 같다네/ 길은 멀고 몸은 지쳤는데 발은 절고 나귀마저 울고 가는구나.” 이처럼 비단조로 끝나는 시가 유독 많은 것은 그가 처한 환경 때문이다.

요즘 향자우나 쓰촨성 시골 음식점에서 나오는 동파육은 솔직히 말해서 삼겹살을 그냥 찌 낸 것 같아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다.